

# 트럼프 '반도체 100% 관세' 언급...삼성·SK 노심초사

여한구 통상본부장 '최혜국 대우' 강조  
관세 부과시 '수입 의존' 美도 영향받아  
한국 속한 최혜국 그룹 15% 수렴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약 100%의 높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웠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엔비디아가 대만에서 전량 제작하는 AI칩을 포함해 다수 반도체를 수입하는 만큼 미중 경쟁 속에서 자국 빅테크의 투자에 큰 부담을 주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업계는 관세를 압박 지렛대로 삼은 트럼프 대통령의 현지 투자 압박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약속한 '최혜국 대우'를 근거로 설명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국가별로 차등해 매겨도 한국 반도체에 100% 수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시설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chips)와 반도체(semi



평택항에 세워져 있는 수입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 15%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7월 경기도 평택항에 수입차가 세워져 있다. 한국의 양대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한미 협상을 통해 현행 25%에서 15%로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행정명령을 발표해야 해당분간 현행 25% 관세가 계속 부과된다. 현행 50%의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도 상호관세와 별개로 유지된다. /연합뉴스

conductors)"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정도"(next week or so)에 품목별 관세를 더 발표할 예정이라며 반도체와 의약품에 언급할 바 있어 이르면 다음 주 반도체 관련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교섭본부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만약에 15%로 (미국 반도체)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고 하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으로, 앞으로 100%가 되면 200%가 되면 상관없다"고 밝혔다.

한국이 향후 반도체 관세에서 여러 나라 중 한국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그룹에 속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는 이번 '100% 관세' 발언이 반도체 업계

에 현지 투자를 강하게 압박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점을 고려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이미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파엠티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 건설을 준비 중이다. 양사 모두 메모리 생산시설은 미국에 없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현지 투자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한국 기업 입장에서 미국 빅테크 수주를 위해선 현지 투자가 수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술 우위에 있는 만큼 미국 빅테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AI 산업 확장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 한국의 반도체가 핵심 공급망 역할을 하는 점을 미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반도체에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도 비용 상승 등 영향이 불가피하다.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는 반도체가 들어가는 휴대전화, 자동차, 가전 등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매년 막대한 반도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외 생산 기지를 가진 미국 기업조차도 자국 고객사에 납품하려면 무역 구조상 미국으로의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AI) 혁명의 중심인 엔비디아의 경우 칩 대부분을 대만 TSMC에 맡기고 있어 실제 관세가 부과되면 엔비디아는 물론 관련 공급망을 나눠 가진 미국 빅테크까지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는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납품하는 SK하이닉스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엔비디아 공급망 진입을 타진 중인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연합뉴스

## 광주TP, 특화산업육성사업 3년 연속 A등급

고용 258명·사업화매출 981억 달성

광주테크노파크가 열악한 지역 여건 속에서도 신규고용 창출과 매출 확대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AI 중심의 산업 육성을 본격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7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A등급)'를 받아 내년도 지역사업 국비예산 18억천만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 산업·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균형발전 정책으로 매년 사업계획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이 차등 지원된다.

광주시 중심으로 광주TP가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해 지역 내 기업육성기관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했으며 지역혁신기관(광주TP, 광주

지역산업진흥원)이 성과를 관리했다.

그 결과, 성과목표 부문에서 신규고용 258명으로 14개 시·도 중 목표달성도 1위를 3년 연속 차지했으며 사업화매출액 981억원으로 작년 대비 174억원 증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우수 성공사례로 ▲(주)현대하이텍 ▲(주)티디엠이 선정됐으며 성공 사례 확산을 통해 지역 기업과 기업육성기관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열악한 지역의 투자여건을 극복, 모빌리티·AI 중심 '광주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뤄냈으며 가전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추진했다. 또한 주력산업을 연계한 'AI융합 디테크 AI스케일업 밸리 사업' 등을 유치하고 초광역과제 발굴·지역미래먹거리 기획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영집 광주TP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산업의 체질개선과 기업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 혁신성과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인태호기자

### "배당 최고세율 25%까지 낮춰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 수준까지 낮춰도 세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고 대주주 배당 유인이 강화돼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이익이라는 주장이 증권계에서 나왔다.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원은 7일 "더 중요한 배당소득 최대세율 하향" 제목의 보고서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문제보다 더 절실한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추가 하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번 정부 정책 핵심은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분배되는 선순환 루트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대주주 달래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건설부진·수출 우려에도 소비는 청신호

KDI "가계 대출금리 하락 등 여건 개선"

우리 경제가 건설업 부진 등 내수 약세 속에서도 소비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8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에 주로 기인해 낮은 생산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소비 여건은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5월부터 이어지는 경기 둔화 흐름에서도 소비 관련 지표에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된다는 의미가 풀이된다.

KDI는 우선 "건설투자가 큰 폭 감소세를 지속하고, 설비투자 증가세도 조정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6월 건설기성(공사실적)은 작년 동기 대비 1.23% 줄면서 지난 5월(-19.8%)에 이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작년 대비 21% 늘었지만, 전월(6.7%)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반면 소비 여건은 시장금리 하락과 소비부양책 등에 힘입어 개선됐다고 KDI는 설명했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는 0% 안팎의 여전히 낮은 증가율에 머물고 있지만, 7월 소비자심리지수(110.8)는 전월(108.7)에 이어 기준치(100)를 크게 웃돌았다.

KDI는 "가계 대출금리는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소비 여건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7월에 지급되기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수출에는 다소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KDI는 "수출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향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선제적 수출 효과가 축소되고 관세 인상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둔화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상주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명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시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